



세계YWCA 그리고 세계YMCA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2020년 11월 8일 -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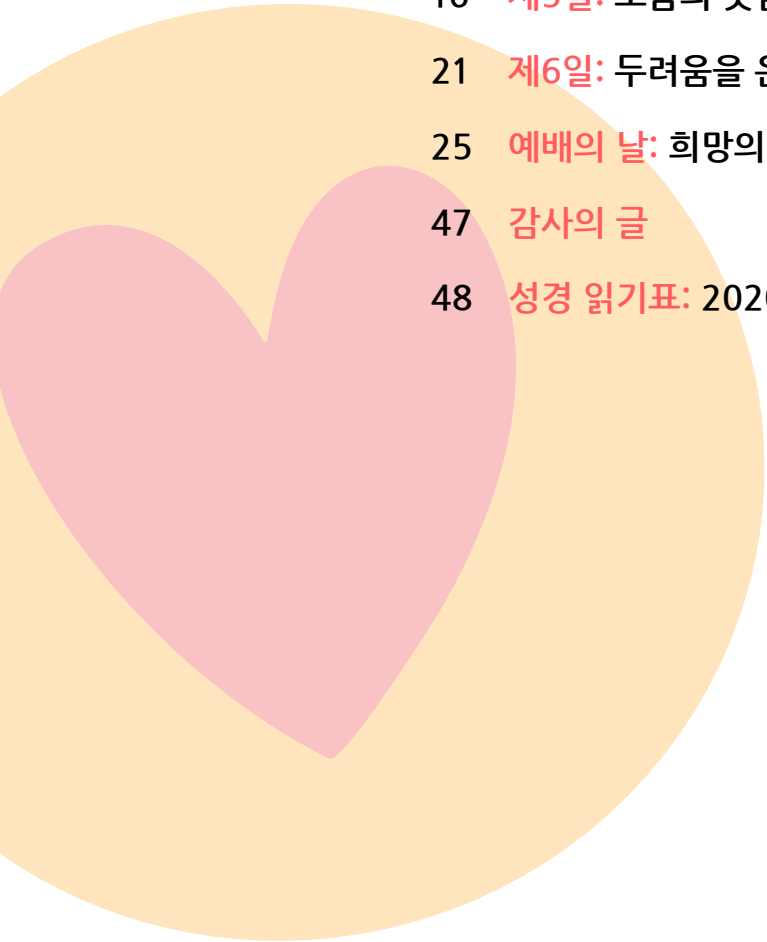
희망의 빛

실천적 영성을 통한 회복탄력성 있는 공동체 만들기

성경 읽기표 2020-2021

목 차



- 3 회장들의 공동 인사말
 - 4 제1일: 연대 안에서 함께 숨 쉬기
 - 7 제2일: 위기를 통한 영적 경제적 역량 증진
 - 10 제3일: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적 정의 선포하기: 실천 촉구
 - 13 제4일: 희망 이어가기: 평화 찾기와 친절의 나눔
 - 16 제5일: 도움의 옷감 짜기
 - 21 제6일: 두려움을 온전한 연약함과 사랑의 신뢰로 변화시키기
 - 25 예배의 날: 희망의 빛
 - 47 감사의 글
 - 48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 

세계YWCA 회장과 세계YMCA 회장의 공동 인사말

복된 여러분,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개인은 물론 많은 공동체들이 여러 방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분적 또는 완전한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이에게 잠시 멈추고, 깊이 뿌리박힌 생각들에 질문을 던지며, 회복을 연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두가 팬데믹을 똑같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는 이 세계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발생된 그리고 원래 존재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영성은 회복과 희망과 국제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YWCA와 YMCA의 운동은 전 세계 모든 공동체의 마음 깊이 자리한 믿음, 영성, 인류애를 엮어 짜 나가며 역사 속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신, 육체, 영혼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리더들, 특별히 우리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돕고 힘을 보태는 데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며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고립을 이겨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 운동들은 더욱 긴밀하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YWCA와 세계YMCA 기도주간의 주제는 하나가 되는 여정으로의 초대, 어떻게 하면 개인의 부르심에서 더 나아가 모두 함께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 그리고 실천적 영성을 통한 회복의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선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짜 정보를 구별해 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각 정부들과 단체 및 기관들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사회, 모든 사회 구성원들,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제도적 고통과 가족 및 사회가 겪는 트라우마, 개인의 불안 등을 돌아보는 동시에 치유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리더들과 운동의 힘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책자는 각 공동체들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각자 속한 지역의 현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더 큰 개념의 초대입니다.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희망과 연대의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 받고, 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위한 고무적인 가르침을 얻기 바랍니다. #WeShallOvercome #우리는극복할것입니다.

미라 리제크
세계YWCA 회장

페트리샤 펠튼
세계YMCA 회장



제 1 일

연대 안에서 함께 숨 쉬기

엘라인 너우엔펠드트, [Act Alliance](#) 젠더 프로그램 매니저

“재난과 재앙의 시대에서 숨 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오히려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부조리를 가중시킵니다.”

현재의 팬데믹은 호흡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 또한 앓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어와 개념들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로움, 두려움이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숨 쉬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정규의 세상 속에서 연대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숨 쉬는’이라는 뜻의 라틴어 ‘conspirāre’가 우리에게 이야기 하듯,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단어들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의 빛을 지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회복과 저항력으로 빛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구약의 이야기 중 열왕기상 17장에는 기근과 가뭄을 겪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항상 여자들, 특히 과부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 속 이 여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죽게 되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치달게 됩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그녀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특히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그렇듯, 이 여인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었을텐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는데... 이야기 속의 선지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정결의 율법을 거스르고, 본인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그 아들의 시신을 그의 팔로 들어 올리고 바로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그의 몸을 세 번 펴서 얹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가정 전체가 사회적으로 되살아난 것과도 같습니다. 이 과부가 혼자 되었다면 그녀는 더 깊은 고통과 외로움,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은 한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줌으로써 한 사람과 가족 전체를 되살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영적 경험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가뭄과 식량부족, 질병 등 매일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교회나 예배당같이 정해진 곳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예배의 형식을 초월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이 선지자 역시 절박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 기거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죽음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누가 의심하거나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경험 속에서 그 누가 믿음과 희망의 한계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고,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죽음이 만져질 만큼 가까이 보일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은 회복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가 죽은 아이의 몸을 끌어안는 의식을 통해 삶을 따뜻하게 데우고 희망을 따뜻하게 데우며 성취되었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본문은 '그 숨이 그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다시 숨을 쉬니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추상적인 성찰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험은 삶의 자리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항상 쉽거나 단순하거나 예상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시신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용기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관계를 재건하기 위하여 죽음과 마주하는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은 삶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경험은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 관계가 회복되고, 그 때문에 비로소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호흡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여러 관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까지도. 삶의 순간순간 숨 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의 생명도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이나 인종, 또는 공식적인 성전이나 예배당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예언적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집과 식탁, 침실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불순함과 미천함을 부수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호흡을 다시 돌려주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의 따뜻한 숨결을 다시

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빛처럼 빛나며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행위로서 고통을 직접 두 팔로 만지며 끌어안는 부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바라보며 서로의 고통을 바라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대를 계속 유지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방인들, 혼자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회복의 영이 우리를 만지게 하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팔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기

-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삶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 개인주의, 외로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일상이 된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자라게 하는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단체로서 /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을 회복시키는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청결을 유지하며 육체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손길로 서로를 “만질” 수 있습니까?

축복기도

이 축복 안에서 숨을 들여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숨을 내 쉬면서, 당신 주변에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거하는 곳을 축복하십니다.

지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존엄성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대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보존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악에 맞서며, 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남자들이 가부장제의 수혜자에서 인권의 수호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들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변화되도록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리더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제 2 일

위기를 통한 영적 경제적 역량 증진

니콜 애쉬우드, [세계교회협의회](#) 프로그램 이사 & 니르말라 구룽, [세계YWCA](#) 아시아 지역 청년 간사

하박국 2:1-3/새번역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Creation”은 사회 변화와 연대를 위한 네팔 기독교청년단체입니다. 2012년, 몇몇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가 좀 더 세상과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Creation 회원들은 연휴 동안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강 청소하기, 학교와 교회에서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하기 등과 같이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임과 사역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서로 만날 수 없게 되고 사업과 학교가 문을 닫아 소득에 타격을 받는 등 많은 회원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해외로부터 오던 교회 지원이 줄어들고, 이동제한으로 물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목사님들과 그 가정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Creation의 리더 니르말라는 이동제한으로 고통받고 있을 그녀의 동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네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들을 (예를 들어, 2달간 2000명의 자살 등)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해결 방법 중 하나는 그녀가 [2019세계YWCA총회](#)에서 인연을 맺게 된 [세계교회협의회](#)와 협업하는 일이었습니다. Creation의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만나 고충을 듣고 기도하며 해결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경공부는 재난의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Creation이 4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역의 더 자세한 내용은 [Facebook](#) 계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선지자 하박국은 그 나라와 그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질병에 관한 위협은 아니었지만, 다가올 위기를 생각하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박국처럼 Creation은 하나님께 안정과 언약을 구하며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라고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당황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곤 했던 때의 경험은 그가 그의 나라를 걱정할 때 나오는 반응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니르말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Creation의 리더로서 그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그녀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읽어 보십시오. 리더로서 당신은 누구에게 조언을 얻으십니까?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는 현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의 패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곧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으며, 하박국은 하나님이 인류와 협력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결과를,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도 했습니다. Creation 회원들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성경을 읽거나 이동제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평화를 찾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들 간의 유대감이 긴밀히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무기력과 실직의 수렁에서 건지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꿈꾸었고, 그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들을 찾아내고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옥상 주방 정원 가꾸기, 닭 기르기, 고기 팔기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실현해 나가는 회복의 희망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Creation은 매주 그들이 새로 배운 것들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네팔에 있는 Shalon Fellowship 지역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천으로 인해, Creation은 희망의 열매와 삶의 회복이 가득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첫 성경 모임 이후, 이동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몇몇 Creation 회원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룹 모임을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박국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이 것이 없을지라도 [...] 이 세상이 팬데믹으로 깊은 근심에 빠져있을 때라도 [...]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3:17-18)

생각해 보기

- 하박국 2:2-3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의 비전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습니까?
- 다른 이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당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축복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용기가 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도록 도와주소서.

공동체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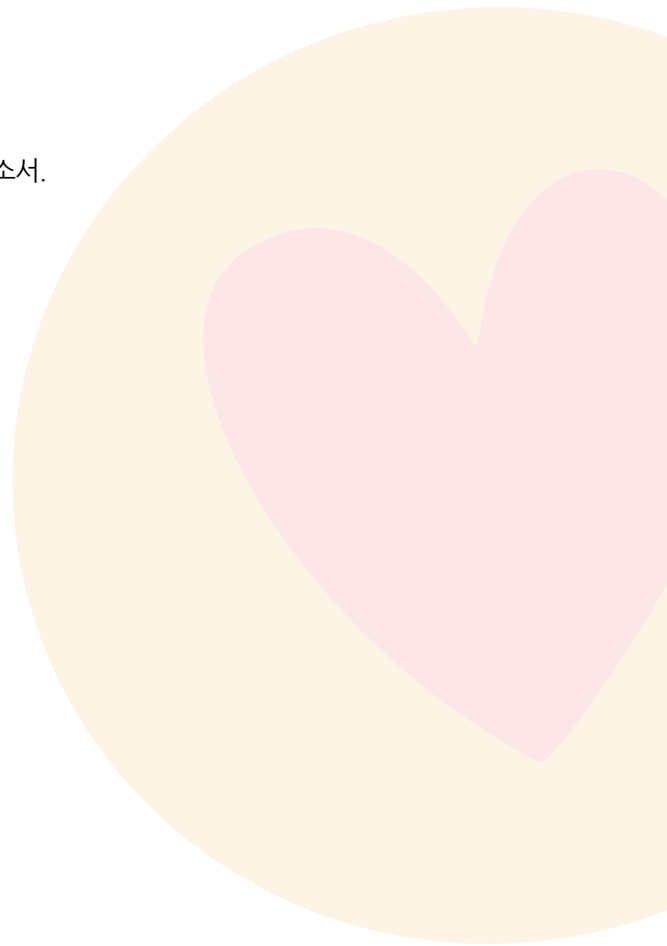
희망이 부서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YWCA와 YMCA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제 3 일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적 정의 선포하기: 실천 촉구

로산젤라 S. 올리베라, [세계기도의날국제위원회](#) 이사

요한복음 5:1-9a/새번역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베데스다) 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처음 이 '양의 문'에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모였을 때, 나는 예수님과 못 가운데 누워있는 이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계기도의날](#) (World Day of Prayer, WDP) 짐바브웨 소속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과 함께 2020년에 열릴 WDP 예배를 위한 연합 글쓰기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매년 3월의 첫째 주 금요일에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2020년 3월 6일에 140여개 나라의 공동체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짐바브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세계보

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그 이후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들이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WDP 주제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입니다. WDP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코로나19가 그들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듣게 되면서, 짐바브웨에서 온 한 자매의 나눔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자매는, 요한복음 5장 6-7절에서 “낫고 싶으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병자가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이 팬데믹을 처음 겪었을 때 느꼈던 무기력함과 닮아 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 지향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후 상황을 읽어내는데 뛰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맥락을 읽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한 제 시각은 바뀌었고, 비로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문’ 근처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신체가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은 치유의 약속을 담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이러한 인내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마도 공기 중에 퍼진 이 희망을 느끼시고, 그들 중 한 명에게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38년 된 병자는 그의 희망을 그의 곁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희망을 실현해 줄 비책이 담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에게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치유는 우리 일상 속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이미 불공평한 사회구조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불공평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살고 있는 북미 원주민들,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건강과 인종의 구조적 불평등을 겪으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밀입국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이민자 구류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공격했던 가족들과 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꼭 필요한 일꾼들로 여겨지는 농장이나 고기 유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은 이곳저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음과 동시에 집세를 낼 돈도 함께 잃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며 행동합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잔인한 행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시위대들이 가진 기나긴 피해자 리스트에는 거의 매달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즉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와 함께 사회 여러 부분을 가로지르는 취약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8절) 로부터 비롯된 회복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과 같은 여러 새로운 계획들은 작은 지역의 식량 창고에서부터 세계적인 평화시위인 [#BlackLives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에 이르기까지, 또 꼭 필요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월세 감면 청원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사회의 만연한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 빠른 변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정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조로 인식되었으며, 함께 거리를 걷는 것으로 사태의 시급함에 공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희망의 공동체는 회복력이 있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몸부림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됩니다. 연합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공공장소에서 우리의 희망을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 당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나음을 얻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 당신의 공동체가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계획들이 필요합니까?
- 당신에게 희망의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축복기도

정의를 선포하는 의미있는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구호들은 팬데믹 상황과 그 이전에도 평화로운 시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구호들은 새로운 정책을 위한 변호이고, 희망의 단어입니다. 몇몇 구호들을 소개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Whose streets? Our streets! (누구의 거리? 우리의 거리!), No Justice, No peace! (정의를 없이는 평화도 없다!), Say her name! Say his name!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그의 이름을 말하라!), What matters? [#BlackLivesMatter!](#) (무엇이 중요한가?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 기도운동을 통해, 함께 희망의 단어를 들이마시고 내십시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몇 초간 심호흡을 하며 당신에게 중요한 단어들,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떠올려 봅시다.

숨을 들이마시며 : 낮고 싶으냐?

숨을 내쉬며: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숨을 들이마시며 :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

숨을 내쉬며: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숨을 들이마시며 :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숨을 내쉬며: 브리오나 테일러 (정의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끝낼 준비가 될 때까지 떠오르는 희망의 단어들로 이 기도운동을 계속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오소서 오소서, 우리를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보내소서.

아멘.

* Taizevirtual choir의 [“Veni Sancte Spiritus”](#) 를 들으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제 4 일

희망 이어가기: 평화 찾기와 친절의 나눔

위넬 키르톤-로버츠, 모라비아 교회 목사

창세기 16:7,8, 13a, b.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래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빼앗긴 미래”

“팬데믹 세대”

“끝없는 고립”

청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표현하는 방식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경제의 대공황과 싸우는 동안, 청년들 역시 예상치 못한 난관과 불확실한 미래, 참기 힘든 고통을 직면하게 되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교육과 사회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많은 정책들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삶이 멈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한된 대면 수업과 함께 병행된 온라인 수업은 전 세계 교육의 허브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며, 건강을 얻게 되는 공간이고 꿈이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과 실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라고 묻는 순간은 깊은 의심과 거절과 버려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부유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서 십 년 동안 충실한 하인으로 섬겼던 이 이집트 여인이 자기성찰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리모가 되라는 요청에 순종하면서, 하갈은 임신 중과 출산 이후 두 번이나 불확실함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창세기 16:6, 21:14)

하갈은 그녀의 주인이었던 사라처럼 어머니로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일정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계층에 속한 하녀로서의 그녀의 신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녀를 고립되게 만들었으며,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 수르로 향하던 하갈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의 등장은 하갈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갈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갈은 친절함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삶에 대해, 그리고 가능하기 힘든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느리게 흘러갈지라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의 성취가 조금 미뤄졌을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대와 또 다가올 다음 세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을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의 신흥 지질학자들로부터 남수단의 농민들, 몰도바의 엔지니어들과 예멘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말씀 속 하갈처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내십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34:15)

하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찾아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갈 길을 보여주며 당신의 불안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마태복음 11:28a)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5,6)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잠재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6,7)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얻게 된 평화에 대한 하갈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약간의 친절을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번영의 미래에 대한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를 바꾸었다고는 하나, 절대로 당신의 미래까지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힘주시겠다고 약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청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2:14b)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뿐만 아니라 목적이 가득한 미래까지도 미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11)

생각해 보기

-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 두려움, 실망, 고립 등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 시편 91:11-12에 대한 생각을 국제 학생들과 나눌 수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교육기관 리더들이 나라와 학교를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국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한 친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Bill Withers의 [“Lean on me”](#)를 들으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Playing For Change](#) 버전)



제 5 일

도움의 옷감 짜기

레베카 다니엘, [세계루터교연맹](#) 소속 인도 신학자 & 니콜 애쉬우드, [세계교회협의회](#) 프로그램 이사

출애굽기 1:15-16, 19-22; 2:1-9a, 10b; 3:9a, 10b, 12b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 오게 하였다. 열어 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 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샅을 주겠다."....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온 세계 여성들과 소녀들, 남성들과 소년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성 불평등과 성차별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소년들이 역시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성 기반 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 의 일환입니다. GBV는 인권에 위배됩니다.

GBV에 침묵하는 문화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성경공부는 이러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여러 방면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 공부는 모세를 구하는 일에 참여한 여섯 여인의 대화를 상상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여섯 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게벳(모세의 어머니), 미리암(모세의 누나), 십브라와 부아(파라오를 속여 넘긴 두 명의 히브리 산파), 비디아(파라오의 딸, 모세의 양어머니) 그리고 아마(비디아의 시녀). 본 대화는 이 여섯 명의 여인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함께, 또한 개인적으로 힘을 모아 모세를 지켰는지에 대해 회상하는 것처럼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섯 여인이 다 같이 둘러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요게벳: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돌아와 파라오를 만나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요.

비디아: 네, 맞아요.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예요. 우리 참 아들을 정의감 넘치게 잘 키웠어요, 그렇지 않나요?

십브라: 네, 맞아요 그랬지요.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때 기억나요?

부 아: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와주러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릴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고 파라오에게 둘러댔었지요.

비디아: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방법이었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었지만, 당시 히브리인 대학살에 대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설 수가 없었어요. 몰래 도울 수밖에 없었지요.

미리암: 다 이해해요. 당신이 아마를 보내 나일 강에서 모세를 건졌을 때, 당신이 그 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이 모든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모세를 돌려 보내주며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해주었죠. 십브라와 부아가 맞았어요. 당신은 늘 우리 편이었어요.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부 아: 미리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우리는 비디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아이들에 관하여 파라오에게 돌려됐을 때, 비디아는 파라오를 설득해 우리의 말을 믿게 만들었지요.

아 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를 하나가 필요하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강에서 모세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것어요. 모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나있었는데, 다시 돌아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게벳: 모세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임신한 순간부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특별한 아이라는 것어요.

비디아: 모든 해방 운동에는 권력을 가진 이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억눌린 자들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법이죠. 우리가 이집트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인이기도 해요. 생명을 창조하고 되살리는 일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지요.

미리암: 생명과 긍휼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여인들이지요!

십브라: 산파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저의 사명은 인종, 계급, 성별과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명령은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어요.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는 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 아: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를 잃은 엄마들의 표정.. 여전히 생생해요. 남자 아이건 여자 아이건, 그 어떠한 아이도 제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아 마: 비디아 공주님, 모세가 다시 돌아와 당신의 오빠가 히브리인들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고 폭력적인 법과 파라오의 학대에서 자유롭게 할 때, 당신 오빠가 취한 행동들을 보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게벳: 당신의 오빠 성격은 정말 대단해요. 모세가 그를 설득해 우리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내 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비디아: 그건 사실이에요. 제 오빠는 순순히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신들에게 더 많은 억눌림이 있을 거예요. 여인들에게 경고를 전해주세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요. 함께 다니면 안전할 거예요. 남자들에게 앞으로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요게벳: 제가 잘 전할게요. 명심합시다. 매일의 삶은 우리 일상이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조심하자고요. 모세에게도 조심하라고 전해줄 수 있나요?

비디아: 오늘 밤 모세에게 이 모든 말들을 전하고, 제가 그를 도울 것이라는 것을 말할 거예요. 요게벳, 우리의 아들은 괜찮을 거예요. 사십 년이 지난 후 모세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와 대면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모세를 잘 훈련 시켰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일 그를 도와줄 일이 기대가 되네요.

미리암: 우리의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기

- 이 대화는 각기 다른 계급과 인종을 가진 여인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협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 출애굽기 3:10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정의를 뒤집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지켰던 사람들 역시 GBV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당신을 인도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GBV와 싸울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 지금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까?

축복기도

억눌린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 계층의 여성을 통해 억압된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기반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성별로 인해 폭력과 트라우마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우리가 연합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소셜 미디어에서 도움의 옷감 짜기

소셜 미디어로 인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녀들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생겼습니다. 연대를 장려하고 공유된 경험들을 수집하면서, 소셜 미디어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평등과 정의를 위해 투쟁을 계획하고 함께할 동료들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가 되었습니다. GBV 캠페인에 관련된 몇 가지 해시 태그를 공유합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 GBV 캠페인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WeekWithoutViolence2020](#) #2020폭력없는주간

세계YWCA 폭력 없는 주간은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고통을 종식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해당 주간 동안에는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개인과 단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실천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세 번째 주간, 전 세계YWCA는 폭력 없는 주장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간 내내 폭력 없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곳](#)을 눌러 올 해의 톨키트를 살펴보세요!

[#ThursdaysinBlack](#)

Thursdays in Black 은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하지만 심

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검정 옷을 입고, 옷깃에 핀을 달아 당신이 강간과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와 관행에 저항하는 국제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정의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여러분의 사진을 해시태그 [#ThursdaysinBlack](#) 와 [#WCC](#)를 포함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MeToo](#) #미투운동

[타라나 벌크](#)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소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MeToo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트윗은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는 불씨가 되었고, 본인들이 당한 성 범죄에 대해 침묵해 오던 여성들이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MeToo는, 국경과 인종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dalitwomenfight](#) #달리트여성투쟁

Dalit Women Fight는 지역사회 주도하에 달리트(인도 신분제도의 최하위계급) 계급 여성들이 정의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돕는 온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카스트 제도에서 기인한 차별과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UnVioladorEnTuCamino](#) (The Rapist Is You, 당신이 강간범)

칠레 페미니스트 단체 Las Tesis는 산티아고 아르마스 광장에서 거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년 전 무렵, 네 명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알리기 위하여 예술과 음악을 통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The Rapist Is You” 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느 곳에 있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강간범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가사는 (피해자임에도 사건의 발단을 여성에게로 돌리려 하는) 여성을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시작된 외침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과 언어권의 여성들이 함께 모여 구조적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iUnaMenos](#) (Not One Les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성 기반 폭력에 저항하는 캠페인으로, 아르헨티나의 예술가, 언론인과 학자들이 함께 모여 2015년에 발생한 여성 살해에 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빠르게 전파된 이 운동은 현재 페미니스트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6 일

두려움을 온전한 연약함과 사랑의 신뢰로 변화시키기

마리아 루치아 우리베, [아리가토우인터네셔널](#) 이사

시편 23편 - 다윗의 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온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립되면서 불안, 우울, 화, 걱정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성을 돌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온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엄성과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곤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이 급변하고 교육이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방비하게 온라인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또 반대로 누

군가에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고, 휴가를 갈 수 없으며, 친구들과 만날 수 없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망한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인사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또한 증가하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청년들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힘든 사건을 겪고 난 후 부르는 기쁨의 찬양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시이며 신뢰와 연약함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경험, 즉 오직 목자만이 그 기르는 양에게 줄 수 있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은 안전한 곳을 향해 이끌려갑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개념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고 있던 갑옷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들은 연약하고 취약하여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들판의 맹수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취약한 신체 조건 때문에 빠르게 도망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도하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고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과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목자가 그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그의 영혼이 새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를 푸른 풀밭에 눕혀 주셨고, 그가 필요했던 휴식과 새 힘을 공급 받았습니.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청년들의 일상이 흔들릴 때에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새 힘은 내 존재의 의미를 되살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굳건하게 하며, 혼자라고 느낄 때 소속감을 높여 줍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음.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이 집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적 체벌을, 누군가는 강간이나 성 착취나 지속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리적 학대와 감정적 부담감을, 또 다른 이들은 무책임한 방임과 방치를 경험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고 취약하게 만들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 내면에서 오는 독특한 힘은 우리가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올바른 길, 즉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리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다른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라는 구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경험한 친밀한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에 앉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시는 관계, 즉 신뢰의 관계와 환영 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풍성한 사랑과 안전을 주는 관계, 보호해 주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상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정서적 슬픔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는 남아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선함과 사랑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취약하게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자기희생적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기

-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어떠한 유익을 경험하였습니까?
-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특권’들 중 특별히 와닿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와 닿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인해 고통, 불안,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보호하며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표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축복기도

사랑의 하나님, 삶이 힘겨울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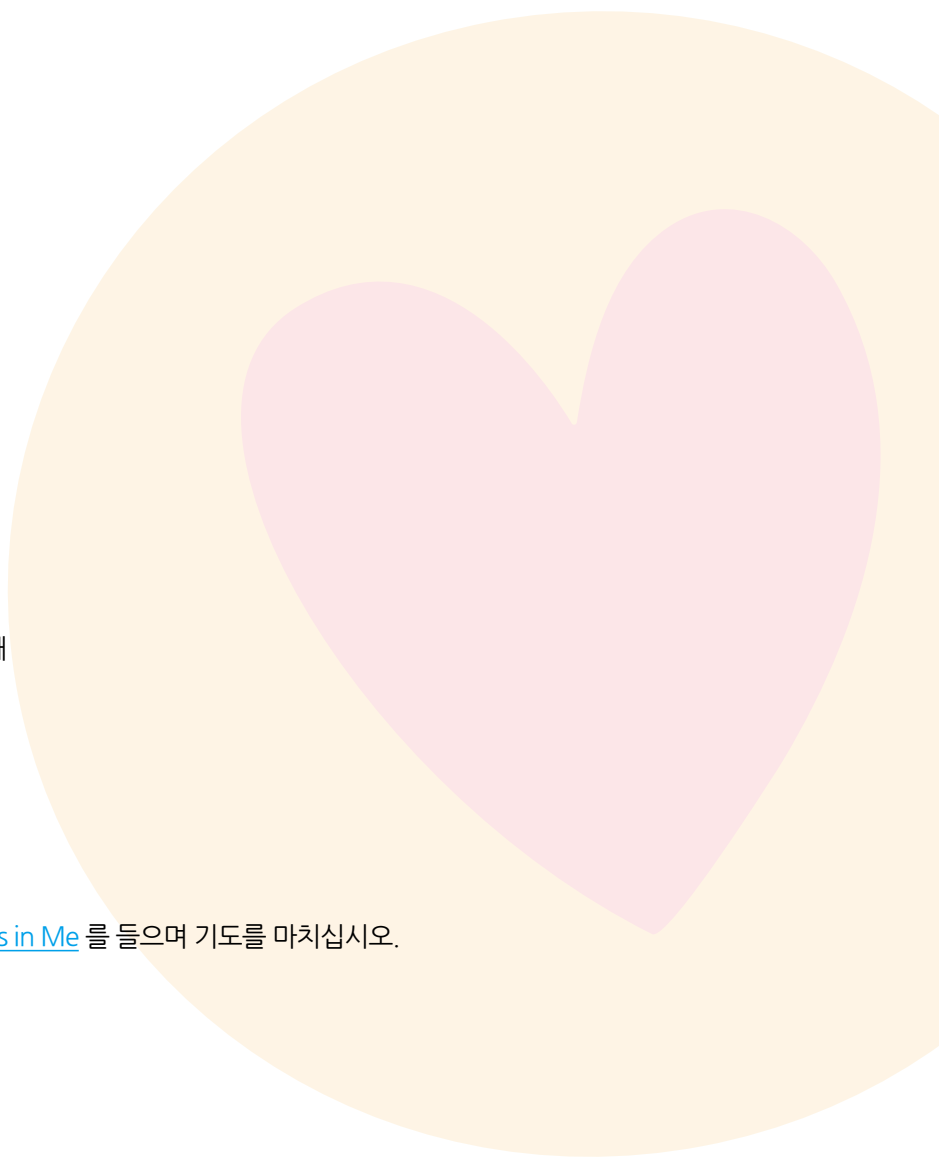
빛 되신 하나님, 삶이 그 빛을 잃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잊은 채 다른 어느 곳에서
새 힘을 찾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와 선함의 하나님
고립되고 잊히고 배신당했다고 느껴
불안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기희생적 사랑의 하나님
회복과 변화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을 연약하고 취약하게 만들 때
내가 변화 되었을 때
나는 완전해 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실 때 나는 완전합니다.

* Teen for Unity([Focolare Movement](#))의 [Your Love is in Me](#) 를 들으며 기도를 마치십시오.





예배의 날 희망의 빛

미키 로버츠, [세계교회협의회](#) 프로그램 이사 & 하넬로어 슈미드 [세계교회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진

축하 예배를 위한 제안

연합예배는 기도주간 중이라면 언제라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 처소의 준비

성전의 중앙이나 앞쪽에 둥근 천 조각을 준비합니다. 이 천을 중심으로 네 개의 천 조각을 바깥쪽으로 빛줄기 모양처럼 놓습니다. 이 천 조각들은 빛의 근원인 중심으로부터 그 빛을 발산하고 있는 희망의 빛을 나타냅니다. 둥근 천 위에 십자가와 성경책을 올려놓으십시오. 상황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예배의 상징물들을 함께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 와서 나를 따라라.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써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소서.
우리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여는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지구 위와 바다 아래, 그리고 공중의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의 위엄과 크고 위대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바다 위의 광대한 수평선과 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손상시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약한 이들을 짓밟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주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류를 향해 가해지는 부당한 행동들을 목격합니다.
오만과 탐욕으로 서로를 파괴하면서, 인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지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애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인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빛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빛이 세상을 환히 밝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한 번 세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끝 날까지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Wa Wa Emimimo

Church of the Lord (Aladura): Nigeria

112

Wa Wa Wa E - mi - mi - mo,
Come, O Ho - ly Spir - it, come.
Komm, o komm Hei - li - ger Geist.
O viens, Es - prit, viens,

Tenor solo

E - mi - o - lo - ye
O wise Spir - it come.
du Geist der Wahr - heit
Es - prit de sa - gesse

Wa Wa Wa A - lag - ba - ra
Come, al - might - y Spir - it, come,
Komm, o komm du Geist voll Kraft.
O viens, puis - sant Es - prit, viens,

a - lag - ba - ra - me - ta
al - might - y Tri - ni - ty
du Geist der Ei - nig - keit
Puis - san - te Tri - ni - té

Wa - o wa - o wa - o.
Come, come, come.
Komm, Komm, Komm.
Viens, viens, viens.

E - mi - mi - mo.
O Spir - it, come.
Hei - li - ger Geist.
O Es - prit, viens.

Yoruban and music as taught by Samuel Solanke © The Church of the Lord (Aladura), P.O. Box 71 Sagamo, Remo, Ogun State, Nigeria.

Notation and English paraphrase by I-to Loh © 1986 WCC and the Asian Institute for Liturgy and Music.
German © Wolfgang Leyk. French: Joëlle Gouël © 1990 W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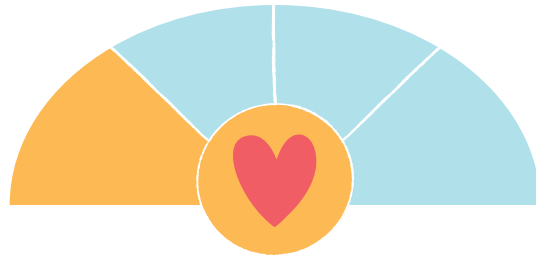
Wa Wa Emimimo

거룩한 성령이여
지혜의 성령
전능한 성령이여
성삼위일체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 - 서

유튜브에 NAXOS of America를 찾아보십시오.

Wa Wa Wa Emimimo (Come, O Holy Spirit, 오소서, 오 성령이여) (나이지리아)





첫 번째 빛

살아있는 희망

준비: 시간이 되면 지정된 사람이 가서 첫 번째 빛인 살아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천 조각을 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천 조각에 해당되는 상징을 미리 적어 놓아 천 조각을 들었을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3-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희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묵상

살아있는 희망은 상황이 결국은 나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낙관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운을 빌거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동전을 던져 결국은 어느 쪽이든 하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반응하지 않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

는 우리의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선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라고 부르는 이 선물은 우리가 가진 희망의 기초와 기틀이 됩니다. 공동체로서, 또 개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희망을 통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살아있는 희망의 빛은 우리가 낙관론이나 기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Despite the Wounds of the Terror

Per Harling

♩ = 82

Dm A7 Dm A7 Dm Bb7 A7

1. Des - pite the wounds of the ter - ror, des - pite our fear and des - pair, we
 2. Des - pite the mea - ning - less suff - ring, des - pite our ang - er and doubts, we
 3. Des - pite de - jec - tion and wor - ries, des - pite our sor - row and grief, we

5 Dm C Bb F Dm Gm A7 C7

still be - lieve in God's pre - sence, af - fir - ming in hope and in prayer: Good - ness is
 still be - lieve in God's po - wer, af - fir - ming with whis - pers and shouts:
 still have trust in God's mer - cy, we still will af - firm and be - lieve:

9 F Bb F Am Bb G7 C

strong - er, strong - er than e - vil. Faith, hope and love ne ver e - ver die. Light will pre -

13 F A7 Dm Bb F C F

vail, pre - vail o - ver dark - ness. Truth will un - mask ev' - ry, ev' - ry lie.

Despite the Wounds of the Terror

고통의 상처에도

고통의 상처에서도
두렵과 절망에도
주동행하심을 믿네
희망과 기도속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 해
선함은 악이 - 기 - 네
어둠은 빛 이기 지 못하고
진실은 거짓 모두 벗기네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 해
선함은 악이 - 기 - 네
어둠은 빛 이기 지 못하고
진실은 거짓 모두 벗기네

실의와 근심중에도
슬픔과 비통에도
주의 자비하심 믿네
믿음으로 나아가네

의미 없는 고난에도
분노와 의심에도
주능력의 권세 믿네
속삭임과 외침중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 해
선함은 악이 - 기 - 네
어둠은 빛 이기 지 못하고
진실은 거짓 모두 벗기네

중보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으로 인해 희망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다시 사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함께 하게 하소서.

온 세상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복음을 증거하며, 언제라도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있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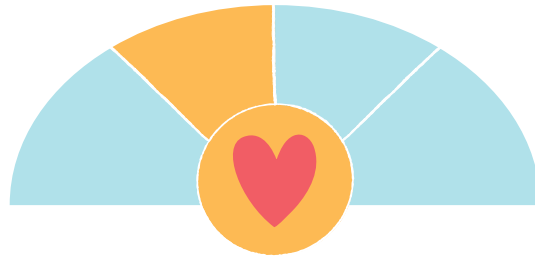
Arabic Orthodox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Kyrie eleison. Lord have mercy on us. Herr, erbarme dich unser. Seigneur, ai pitié de nous. Señor, ten piedad de nosotros.

야랍우르 함. 야랍우르 함. 야랍우르 함.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빛

절망 속 희망

준비: 시간이 되면 지정된 사람이 가서 두 번째 빛인 절망 속 희망을 상징하는 천 조각을 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천 조각에 해당되는 상징을 미리 적어 놓아 천 조각을 들었을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에스겔 37:1-14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 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갓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론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묵상

사람들은 2020년을 절망의 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비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절망이 밀려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결과로 벌어진 일들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달리 느낄 수 있겠습니까? 급작스러운 죽음, 공포, 패닉, 경제 불황, 폭등하는 실업률, 인권 유린의 증가, 전 세계에 만연한 기근, 정신 건강의 위협,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증가 등등, 미처 열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절망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 속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절망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몇 달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절망 속 희망**은 터널의 끝에서 마치 빛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비참함, 고뇌와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깊은 절망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삶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기쁨이 넘치며 목적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새 삶을 말입니다.



Vem Santo Espírito (Come, O Come, Creating Spirit)

♩ = 62

1. Vem, ó Tu que fa - zes no - vos, os sis - te - mas de pen - sar, que às le - tras das sen -
1. Ven, oh Tu que ha - ces nue - vos los sis - te - mas de pen - sar, que a las le - tras das sen -
1. Come, O come, cre - at - ing Spir - it, You can change our way of thought; to the writ - ten word give

7

ti - do e am - pli as nos - so o lhar! Vem, e to - ca nos - so mun - do: ter - ra
 ti - do y que am - pli - as el mi - rar. Ven y to - ca nues - tro mun - do: tie - rra
 mean - ing, wi - der vi - sion You have brought. Touch our earth dried out with sor - row, touch our

12

á - ri - da de dor. Nes - te va - le de os - sos se - cos so - pra vi - da e a - mor!
 lle - na de a - fli - cción. A es - tos hue - sos se - cos so - pla nue - va vi - da y a - mor!
 world of ar - id death. On the dry bones of this val - ley blow Your lov - ing, liv - ing breath.

Music and original words: Simeí Monteiro © GBGMusik, USA. Spanish © Juan Gattinoni. English: Shirely Erena Murray © Hope Publishing Co., USA.

2. Vem, ó Tu que intercedes,
 e que gemes junto à nós.
 Que ressoas nos lamentos
 e aqueces nossa voz!
 Sê a chama que alimenta
 e incandesce o coração.
 Vem, e rompe de repente
 as amarras da omissão!

2. Ven Oh Tú que intercedes,
 gimes con nuestro dolor.
 Tú que escuchas el lamento
 y que alientas el clamor!
 Sé la llama que alimenta
 y que enciende el corazón.
 Ven, desata de repente
 las amarras de omisión.

2. Come, O Spirit of compassion,
 crying out, You intercede
 echoing our lamentation
 cheer the voice in which we plead.
 Be the flame that feeds our courage,
 be the fire that fills our veins,
 from our apathy's inaction
 come and free us from these chains.

3. Vem, ó Tu que és dom divino
 e convence-nos do mal.
 Trava as máquinas da morte
 e da força irracional.
 Vem, transforma planos tolos
 em projetos de viver.
 Vem, inunda nossa era
 de esperança e de saber!

3. Ven, Tú que eres don divino,
 y convéncenos del mal.
 Frena máquinas de muerte
 y de fuerza irracional.
 Ven, transforma planes locos,
 en proyectos de vivir.
 Ven, inunda nuestro tiempo
 de esperanza y de saber.

3. Come, O come, You gift of heaven
 and convince us of our sin;
 halt the weapons of destruction
 and our madness, deep within.
 Change our foolish ways of working
 into plans for life and scope,
 come and flood our world with wisdom,
 come and flood our age with hope.

오소서, 오 오소서, 창조의 영이여

오소서 창조의 영이여	불꽃같은 용기 주고
우리 생각 바꾸소서	우릴 채워주소서
단어에 의미를 주고	사슬에 묶인 우리를
넓은 시야 주시네	자유롭게 하소서
메마르고 죽은 땅을	
어루만져주소서	오소서 천국의 선물
메마른 뼈에 생기를	우리의 죄악들을
불어 넣어주소서	깨달게 하여주시고
	멈추게 하옵소서
오소서 긍휼의 영이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우리 외침 들으소서	삶으로 인도 하사
애 통하며 간청 하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목소리 들으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중보기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마르고 황폐한 곳을 헤매이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엔 방해가 받으며, 우리는 질병과 아픔,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를 결박하고, 절망과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모든 희망을 잃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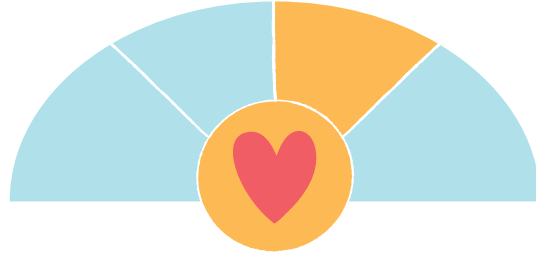
아멘.

Arabic Orthodox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Kyrie eleison. Lord have mercy on us. Herr, erbarme dich unser. Seigneur, ai pitié de nous. Señor, ten piedad de nosotros.

야랍우르 함. 야랍우르 함. 야랍우르 함.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 빛

창조를 향한 희망

준비: 시간이 되면 지정된 사람이 가서 세 번째 빛인 창조를 향한 희망을 상징하는 천 조각을 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천 조각에 해당되는 상징을 미리 적어 놓아 천 조각을 들었을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세기 9:8-17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묵상

지구와 모든 창조물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곤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례 없는 기온 상승에 따른 이상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부정하며 지구 온난화가 허구이고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고,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조물을 돌아보고 보살피기 위해 개개인과 공동체가 하루바삐 변화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부들이 함께 논의하고 서명한 조항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절망감을 가져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정부들이 이러한 조항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이, 오히려 작은 섬에 살면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와 이기적인 욕심들이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현 상황에서,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려 하니 절망감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들어

나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 희망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창조를 향한 희망은 정부나 공동체나 개인의 실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지개 하나하나에 담긴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창조를 향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Aliitasi

Ioselani Pouesi

U.P. Solomona

1. The scrip - tures call, the Spir - it calls: Rise up, be - lov - ed one,
 2. Now hear the voice of Je - sus say: Come, bur - dened one, come and

come! New life re - turns, the rains have gone; the flow'rs ap -
 rest! Come, take my yoke and learn of me, and you 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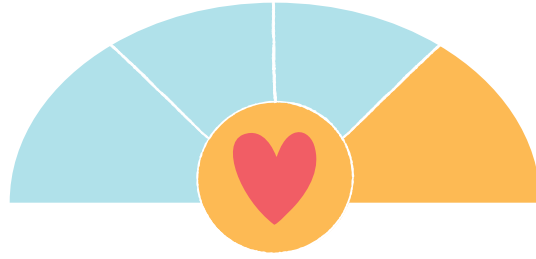
pear a - gain up on the earth. Re - jice! The songs of
 find the peace that heals your soul. Oh, come! Come seek the

joy once more are heard as God a - gain re - news the earth.
 Lord, hear now God's call. God's peace re - news the wear - y soul.

Words: Ioselani Pouesi. Music: M.P. Solomona © 1986 O Le Ekalesia Faapotopotoga Kerisiano i Samoa.
 English adaptation: Andrew Donaldson © 2013 WCC, P.O. Box 2100, CH-1211 Geneva 2.

Aliitasi

사랑하는 자여 오라	내게 오라 짐진 자들
일어나서 나오라	예수가 부르신다
비그치고 새 생명 꽃	와서 나를 따르는 자
지구에 다시 피어났도다	참평화 얻고 영혼 살리라
기뻐하라 기쁨의 노래	오라 오라 주님 찾으면
다시 한번 울려 퍼진다	곤한 영혼 편히 쉬리라



네 번째 빛 희망의 복음

준비: 시간이 되면 지정된 사람이 가서 네 번째 빛인 희망의 복음을 상징하는 천 조각을 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천 조각에 해당되는 상징을 미리 적어 놓아 천 조각을 들었을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가복음 4:16-21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묵상

그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모든 눈들이 예수님께 향한 채, 이 새로운 랍비가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와 폭정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주 참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현실에 구현시킨 예수님은 기쁜 소식, 즉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과 본질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복음의 요약과도 같은 오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을 넘어 희망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잃은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희망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Hope of the world

Georgia Harkness: USA

V. Earle Copes: USA

1. Hope of the world, O Christ of great com - pas - sion,
 2. Hope of the world, God's gift from high-est heav - en,
 3. Hope of the world, who by the cross did save us
 4. Hope of the world, O Christo'er death vic - tor - ious,

speak to our fear - ful hearts by con - flict torn.
 bring - ing to hun - gry souls the bread of life,
 from death and dark de - spair, from sin and guilt,
 who by this sign did con - quer grief and pain,

Save us, your peo - ple, from con - sum - ing pas - sion,
 still let your spir - it un - to us be giv - en,
 we ren - der back the love your mer - cy gave us;
 we would be faith - ful to your gos - pel glo - rious;

from false pur - suits through which our lives are worn.
 to heal earth's wounds and end all bit - ter strife.
 take back our lives, and use them as you will.
 our Sov - ereign who for - ev - er more shall reign!

Music: V. Earle Copes, USA. Words: 1954 Georgia Harkness, USA; alt. © Renewal 1982
 by the Hymn Society of Canada and the USA. *This text was written for the 2nd WCC Assembly.*

Hope of the world

세상의 희망

세상의 희망 오금 흠하신 예수
찢기고 상한 맘만 지소서
삶속의 고통 헛된 욕망에서
주님의 백성 구해 주소서

상처 난 영혼 치유 하여 주며
전쟁을 끝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망 하나님 주신 선물
생명의 양식 내려 주시고

세상의 희망 죽음이기신 예수
슬픔과 고통이 기셨도다
우리는 믿네 영광스런 복음
주께서 다스리네 영원히

중보기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우리의 혀를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규칙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 희망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다른 이들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희망의 복음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 주시기를,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우리 공동체로 품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희망이시여.

아멘.

Arabic Orthodox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Ya Rab ur - ham.

Kyrie eleison. Lord have mercy on us. Herr, erbarme dich unser. Seigneur, ai pitié de nous. Señor, ten piedad de nosotros.

야 랍 우르 함. 야 랍 우르 함. 야 랍 우르 함.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기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인도자: 오 하나님,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억압과 비정의를 군림하는 희망이 없는 곳,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막,
생명이 업신여겨지고 잔인하게 잘려나가는 전쟁터,
인간의 탐욕에 의해 고갈되고 황폐해진 지구,
메마른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 두: (이러한 장소들을 크게, 또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for we are all one bod - y
13 in one God, called to one hope in Christ. Oh,
23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Oh,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From Thailand. English: Ruth Srisuwan.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해
주 안에 우린 하나한-가-족-
예수 우리에게 희망 주시네 오 주여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릴 하나로 묶으소서

인도자: 오 하나님, 황폐해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희망이 죽어버린 예배 처소,
활기를 잃어버린 사명,
변화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협의회,
갈등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사기가 꺾어버린 청년들,
갈 곳이 없는 이민자들,
의심 받는 낯선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모 두: (간략한 기도제목들을 크게, 또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for we are all one bod - y
13 in one God, called to one hope in Christ. Oh,
23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Oh,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From Thailand. English: Ruth Srisuwan.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해
주 안에 우린 하나한-가-족-
예수 우리에게 희망 주시네 오 주여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릴 하나로 묶으소서

인도자: 오 하나님, 황폐해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희망이 죽어버린 예배 처소,
활기를 잃어버린 사명,
변화를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협의회,
갈등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사기가 꺾어버린 청년들,
갈 곳이 없는 이민자들,
의심 받는 낯선 사람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모 두: (간략한 기도제목들을 크게, 또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for we are all one bod - y
13 in one God, called to one hope in Christ. Oh,
23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Oh, Lord, u - nite us in your name.

From Thailand. English: Ruth Srisuwan.

Praise the Lord, Sing to God a New Song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해
주 안에 우린 하나 한-가-족-
예수 우리에게 희망 주시네 오 주여
주님 이름 안에서
우릴 하나로 묶으소서

인도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확증될 것입니다. 각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까

The Right Hand of God

Patrick Prescod

Noel Dexter: Jamaica

1. The right hand of God is writ - ing in_ our land,
 2. The right hand of God is point - ing in_ our land,
 3. The right hand of God is strik - ing in_ our land,
 4. The right hand of God is lift - ing in_ our land,

6
 writ - ing with pow - er and with love; _____ Our
 point - ing the way we must and go; _____ so
 strik - ing out at en - vy, hate and greed; _____ our
 lift - ting the fal - len one by one; _____ each

10
 con - flicts and_ our fears, our tri - umphs and_ our
 cloud - ed is_ the way, so eas - i - ly_ we
 self - ish - ness_ and lust, our pride and deed un -
 one is known by name, and res - cued now_ from

13
 tears are re - cord - ed by_ the right hand of God.
 stray, but we're guid - ed by_ the right hand of God.
 just, are des - troyed by_ the right hand of God.
 shame by the lift - ing of_ the right hand of God.

The Right Hand of God

주의 오른팔

주의 오른팔이 쓰고 계시네
힘과 사랑으로 쓰네
우리의 두려움 승리와 눈물
기록하시네 주의 오른팔로

주의 오른팔이 내리치시네
질투 욕심 사라지네
이기심과 욕망 오만과 부정
내리치시네 주의 오른팔로

주의 오른팔이 가리키시네
우리 갈길 알리시네
구름길 가려서 길 잃을 때도
가리키시네 주의 오른팔로

주의 오른팔이 들어올리네
잃은 영혼 건지시네
우리 이름 불러 구원하시네
들어올리네 주의 오른팔로

영국감리교회 청년 성가대가 부른 [The Right Hand of God](#)을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축도

이제 우리는 희망 가득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희망이 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피조물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며 부활의 희망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글

세계 기도주간 책자 제작을 위해 수고하고 도움을 주신
작가, 신학자, 번역가 및 모든 참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이드리안 다비스 (세계YWCA)
카테리나 램프 (세계YWCA)
다니엘라 젤라야 라우달레스 (세계YWCA)
니르말라 구룽 (세계YWCA)
엘라인 너우엔펠트 (Act Alliance 젠더 프로그램)
하넬로어 슈미드 (세계교회협의회)
마리아 루치아 우리베 (아리가토우인터네셔널)
마릿자 비텔라 (아리가토우인터네셔널)
미키 로버츠 (세계교회협의회)
니콜 애쉬우드 (세계교회협의회)
레베카 다니엘 (세계루터교연맹)
로산젤라 올리베라 (세계예배위원회)
위넬 키르톤-로버츠 (모라비아 교회)

성경 읽기 표: 성경 읽기를 위한 에큐메니칼 워킹그룹(Ökumen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Bibellesen - ÖAB)
- 독일 번역 발레리아 마리마가 메야

기도책자 국문 번역 - 하경은(haky@tcd.ie)
감수: 구정혜, 김은영(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 세계YWCA 소속 알리사 위스미어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1 사도행전 12:1-11	1 이사야 60:19-22	1 시편 8
2 사도행전 12:12-19	2 이사야 61:1-3	2 누가복음 3:1-6
3 고린도전서 12:12-20	3 이사야 61:10-11	3 시편 100
4 고린도전서 12:21-26	4 이사야 62:6-12	4 누가복음 3:7-14
5 고린도전서 12:27-31a	5 이사야 63:15-19a	5 누가복음 3:15-20
6 고린도전서 12:31b-13:3	6 이사야 63:19b-64:3	6 누가복음 3:21-38
7 고린도전서 13:4-7	7 이사야 65:16b-25	7 누가복음 4:1-13
8 고린도전서 13:8-13	8 이사야 66:18b-19	8 누가복음 4:14-21
9 고린도전서 15:1-11	9 스가랴 1:1-6	9 누가복음 4:22-30
10 고린도전서 15:12-22	10 스가랴 1:13-17	10 시편 72
11 고린도전서 15:23-28	11 스가랴 2:5-9	11 누가복음 4:31-37
12 고린도전서 15:58	12 스가랴 2:10-17	12 누가복음 4:38-44
13 고린도전서 16:13-14	13 스가랴 8:1-8	13 누가복음 5:1-11
14 디모데후서 1:1-5	14 스가랴 8:14-17	14 누가복음 5:12-16
15 디모데후서 1:6-11	15 스가랴 8:20-23	15 누가복음 5:17-26
16 디모데후서 2:1-5	16 스가랴 9:9-10	16 누가복음 5:27-32
17 디모데후서 2:11-13	17 누가복음 1:1-4	17 시편 40
18 디모데후서 3:1-5	18 누가복음 1:5-17	18 누가복음 5:33-39
19 디모데후서 3:14-15	19 누가복음 1:18-25	19 누가복음 6:1-5
20 디모데후서 3:16-17	20 누가복음 1:26-38	20 누가복음 6:6-11
21 디모데후서 4:7-8	21 누가복음 1:39-45	21 누가복음 6:12-16
22 디모데후서 4:9-15	22 누가복음 1:46-56	22 누가복음 6:17-26
23 디모데후서 4:16-18	23 누가복음 1:57-66	23 누가복음 6:27-35
24 시편 126	24 누가복음 1:67-80	24 시편 16
25 이사야 56:1-2,6-7	25 누가복음 2:1-7	25 누가복음 6:36-42
26 이사야 58:1-9a	26 누가복음 2:8-21	26 누가복음 6:43-46
27 이사야 58:9b-12	27 누가복음 2:25-32	27 누가복음 6:47-49
28 이사야 59:9-15a	28 누가복음 2:36-40	28 누가복음 7:1-10
29 이사야 59:15b-21	29 누가복음 2:41-52	29 누가복음 7:11-17
30 이사야 60:1-3	30 시편 131	30 누가복음 7:18-23
	31 시편 133	31 시편 18:1-20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1 누가복음 7:24-35	1 누가복음 11:29-32	1 누가복음 23:26-31
2 누가복음 7:36-8:3	2 누가복음 11:33-36	2 누가복음 23:32-49
3 누가복음 8:4-15	3 누가복음 11:37-54	3 누가복음 23:50-56
4 누가복음 8:16-18	4 누가복음 18:31-43	4 누가복음 24:1-12
5 누가복음 8:19-21	5 누가복음 19:1-10	5 누가복음 24:13-35
6 누가복음 8:22-25	6 누가복음 19:11-27	6 누가복음 24:36-49
7 시편 18:21-51	7 시편 34	7 누가복음 24:50-53
8 누가복음 8:26-39	8 누가복음 19:28-40	8 골로새서 1:1-14
9 누가복음 8:40-56	9 누가복음 19:41-48	9 골로새서 1:15-23
10 누가복음 9:1-9	10 누가복음 20:1-8	10 골로새서 1:24-29
11 누가복음 9:10-17	11 누가복음 20:9-19	11 시편 116
12 누가복음 9:18-27	12 누가복음 20:20-26	12 골로새서 2:1-7
13 누가복음 9:28-36	13 누가복음 20:27-40	13 골로새서 2:8-15
14 시편 15	14 시편 84	14 골로새서 2:16-23
15 누가복음 9:37-45	15 누가복음 20:41-47	15 골로새서 3:1-4
16 누가복음 9:46-48	16 누가복음 21:1-4	16 골로새서 3:5-11
17 누가복음 9:49-50	17 누가복음 21:5-19	17 골로새서 3:12-17
18 누가복음 9:51-56	18 누가복음 21:20-28	18 시편 23
19 누가복음 9:57-62	19 누가복음 21:29-38	19 골로새서 3:18-4:1
20 누가복음 10:1-16	20 누가복음 22:1-6	20 골로새서 4:2-6
21 시편 10	21 시편 22:1-22	21 골로새서 4:7-18
22 누가복음 10:17-24	22 누가복음 22:7-23	22 다니엘서 1:1-21
23 누가복음 10:25-37	23 누가복음 22:24-30	23 다니엘서 2:1-23
24 누가복음 10:38-42	24 누가복음 22:31-38	24 다니엘서 2:24-49
25 누가복음 11:1-4	25 누가복음 22:39-46	25 시편 67
26 누가복음 11:5-13	26 누가복음 22:47-53	26 다니엘서 3:1-30
27 누가복음 11:14-28	27 누가복음 22:54-62	27 다니엘서 5:1-30
28 시편 25	28 시편 22:23-32	28 다니엘서 6:1-29
이사야 59:15b-21	29 누가복음 22:63-71	29 다니엘서 7:1-15
이사야 60:1-3	30 누가복음 23:1-12	30 다니엘서 7:16-28
	31 누가복음 23:13-25	시편 18:1-20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1 다니엘서 8:1-27	1 사도행전 4:32-37	1 사도행전 15:1-12
2 시편 45	2 사도행전 5:1-16	2 사도행전 15:13-35
3 다니엘서 9:1-19	3 사도행전 5:17-33	3 사도행전 15:36-16:5
4 다니엘서 9:20-27	4 사도행전 5:34-42	4 시편 7
5 다니엘서 10:1-21	5 사도행전 6:1-7	5 사도행전 16:6-15
6 다니엘서 12:1-13	6 시편 3	6 사도행전 16:16-22
7 잠언 25:11-28	7 사도행전 6:8-15	7 사도행전 16:23-40
8 잠언 26:1-17	8 사도행전 7:1-29	8 사도행전 17:1-15
9 시편 1	9 사도행전 7:30-53	9 사도행전 17:16-34
10 잠언 27:1-7	10 사도행전 7:54-8:3	10 사도행전 18:1-22
11 잠언 28:12-28	11 사도행전 8:4-25	11 시편 26
12 잠언 29:1-18	12 사도행전 8:26-40	12 사도행전 18:23-19:7
13 시편 47	13 시편 13	13 사도행전 19:8-22
14 잠언 30:1-19	14 사도행전 9:1-9	14 사도행전 19:23-40
15 잠언 31:1-9	15 사도행전 9:10-19a	15 사도행전 20:1-16
16 시편 27	16 사도행전 9:19b-31	16 사도행전 20:17-38
17 사도행전 1:1-14	17 사도행전 9:32-43	17 사도행전 21:1-14
18 사도행전 1:15-26	18 사도행전 10:1-23	18 시편 9
19 사도행전 2:1-13	19 사도행전 10:24-48	19 사도행전 21:15-26
20 사도행전 2:14-21	20 시편 103	20 사도행전 21:27-40
21 사도행전 2:22-28	21 사도행전 11:1-18	21 사도행전 22:1-21
22 사도행전 2:29-36	22 사도행전 11:19-30	22 사도행전 22:22-30
23 사도행전 2:37-41	23 사도행전 12:1-25	23 사도행전 23:1-11
24 사도행전 2:42-47	24 사도행전 13:1-12	24 사도행전 23:12-35
25 사도행전 3:1-10	25 사도행전 13:13-25	25 시편 11
26 사도행전 3:11-16	26 사도행전 13:26-43	26 사도행전 24:1-27
27 사도행전 3:17-26	27 시편 5	27 사도행전 25:1-12
28 사도행전 4:1-12	28 사도행전 13:44-52	28 사도행전 25:13-27
29 사도행전 4:13-22	29 사도행전 14:1-20a	29 사도행전 26:1-23
30 시편 29	30 사도행전 14:20b-28	30 사도행전 26:24-32
31 사도행전 4:23-31	누가복음 23:13-25	31 사도행전 27:1-12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1 시편 63	1 에스라 7:1-28	1 히브리서 10:19-31
2 사도행전 27:13-44	2 학개 1:1-15	2 히브리서 10:32-39
3 사도행전 28:1-16	3 학개 2:1-9	3 시편 104
4 사도행전 28:17-31	4 학개 2:10-23	4 히브리서 11:1-7
5 열왕기하 2:1-18	5 시편 119:137-144	5 히브리서 11:8-22
6 열왕기하 4:1-7	6 느헤미야 1:1-11	6 히브리서 11:23-31
7 열왕기하 5:1-19a	7 느헤미야 2:1-20	7 히브리서 11:32-40
8 시편 30	8 느헤미야 4:1-17	8 히브리서 12:1-17
9 열왕기하 6:8-23	9 느헤미야 5:1-19	9 히브리서 12:18-29
10 열왕기하 16:1-16	10 느헤미야 6:1-7:3	10 시편 32
11 열왕기하 17:1-23	11 느헤미야 8:1-18	11 히브리서 13:1-8
12 열왕기하 17:24-41	12 시편 119:145-152	12 히브리서 13:9-14
13 열왕기하 18:1-12	13 느헤미야 10:1.29-40	13 히브리서 13:15-25
14 열왕기하 18:13-37	14 느헤미야 12:27-43	14 누가복음 12:1-12
15 시편 17	15 느헤미야 13:15-22	15 누가복음 12:13-21
16 열왕기하 19:1-19	16 히브리서 1:1-2:4	16 누가복음 12:22-34
17 열왕기하 19:20-37	17 히브리서 2:5-18	17 시편 62
18 열왕기하 22:1-13	18 히브리서 3:1-19	18 누가복음 12:35-48
19 열왕기하 22:14-23:3	19 시편 119:153-160	19 누가복음 12:49-53
20 열왕기하 23:4-25	20 히브리서 4:1-13	20 누가복음 12:54-59
21 열왕기하 23:26-37	21 히브리서 4:14-5:10	21 누가복음 13:1-9
22 시편 12	22 히브리서 5:11-6:8	22 누가복음 13:10-17
23 열왕기하 24:1-20	23 히브리서 6:9-20	23 누가복음 13:18-21
24 열왕기하 25:1-21	24 히브리서 7:1-10	24 시편 19
25 열왕기하 25:22-30	25 히브리서 7:11-28	25 누가복음 13:22-30
26 에스라 1:1-11	26 시편 110	26 누가복음 13:31-35
27 에스라 3:1-13	27 히브리서 8:1-13	27 누가복음 14:1-6
28 에스라 4:1-24	28 히브리서 9:1-15	28 누가복음 14:7-14
29 시편 28	29 히브리서 9:16-28	29 누가복음 14:15-24
30 에스라 5:1-17	30 히브리서 10:1-18	30 누가복음 14:25-35
31 에스라 6:1-22	누가복음 23:13-25	31 시편 20

성경 읽기표

2020년 11월 - 2021년 11월

2021년 11월

- 1 누가복음 15:1-10
- 2 누가복음 15:11-32
- 3 누가복음 16:1-9
- 4 누가복음 16:10-13
- 5 누가복음 16:14-18
- 6 누가복음 16:19-31
- 7 시편 21
- 8 누가복음 17:1-10
- 9 누가복음 17:11-19
- 10 누가복음 17:20-37
- 11 누가복음 18:1-8
- 12 누가복음 18:9-17
- 13 누가복음 18:18-30
- 14 시편 6
- 15 데살로니가전서 1:1-10
- 16 데살로니가전서 2:1-12
- 17 데살로니가전서 2:13-20
- 18 데살로니가전서 3:1-13
- 19 데살로니가전서 4:1-12
- 20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21 시편 4
- 22 데살로니가전서 5:1-11
- 23 데살로니가전서 5:12-28
- 24 데살로니가후서 1:1-12
- 25 데살로니가후서 2:1-12
- 26 데살로니가후서 2:13-3:5
- 27 데살로니가후서 3:6-18
- 28 시편 24
- 29 스가랴 1:1-6
- 30 스가랴 1:7-17



Published by



16 L'Ancienne-Route
1218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www.worldywca.org



12 Clos Belmont,
1208 Geneva, Switzerland
www.ymca.int



(사) 한국YWCA연합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명동1가)
www.ywca.or.kr
TEL : 02-774-9702
FAX : 02-774-9724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www.ymcakorea.org
TEL : 02-754-7891
FAX : 02-774-8889